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토론활동 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 탐구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류 현 경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토론활동 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 탐구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류 현 경

인 준 서

류현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 습득에 필요한 학교 교과과정의 토론교육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토론 교육의 실태에 주목한 몇몇 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토론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 교육의 기초자료인 교과서 토론활동 자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론 교육을 위해 마련된 토론활동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교육에서 토론학습의 중요성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토론학습의 의의와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이런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교과서 4종의 탐구활동에 ‘토론해보자’, ‘토의해보자’, ‘논의해보자’의 형태로 나타나 토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과 유형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양적분석과 내용분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양적분석은 출판사별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비율과 단원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토론활동 자료의 수는 출판사별로 큰 차이가 있었고, 토론활동 자료의 비율은 10% 내외로 적은 수준이었다. 둘째, 토론활동 자료가 가장 고르게 분포하는 단원은 ‘Ⅱ. 정치 과정과 참여’로 나타났으며, ‘Ⅲ.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와 ‘Ⅳ.국제 사회와 정치’ 단원에서는 토론이 현저히 적게 분포하였다.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토론의 기회를 주는 반면, 헌법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하

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 셋째, 유형 분류는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유사토론형과 제한적토론형 그리고 자유토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토론활동 자료를 살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토론형과 제한적토론형이 자유토론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심지어 한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자유토론형이 2개로 나타나 대단원의 수보다 적었다.

내용분석은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게 하는가, 대화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등의 3가지 준거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생들의 주체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한 토론활동 자료가 49.5%를 점했다. 또한, 토론활동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충분한 정보에 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자료가 33.7%로 보완될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다행인 것은 토론활동 자료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화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하여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활동은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적인 자세를 갖고 타협할 수 있는 경험으로써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유토론형 토론활동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느 단원에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교과내용이 주입식으로만 전달될 경우 학생들은 암묵적으로 교과내용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정치교과서는 단원별로 고르게 토론활동 자료를 마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용분석 결과,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상당수의 토론활동 자료가 학생들의 주체적 사고력과 판단력 함양 면에서 미흡하였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토론활동 자료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학교교육과 민주적 태도에 관한 연구	6
1) 토의민주주의와 민주적 태도	6
2) 민주적 태도의 습득과 학교교육	8
2. 토론학습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검토	10
1) 토론학습의 의미와 교육적 효과	10
2)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토론학습의 중요성	13
3) 토론학습의 실태	15
III. 정치교과서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7
1. 분석대상	17
1) 왜 정치교과서인가?	17
2) 왜 탐구활동인가?	18

2. 분석준거	20
1) 토론활동 자료의 양적분석	22
2)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30
IV. 정치교과서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34
1. 토론활동 자료의 양적분석 결과	34
1)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34
2) 단위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36
3)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38
2.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결과	48
1)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측면	48
2) 대화 능력의 향상 측면	55
3) 학교 여건상 현실적 가능성 측면	59
V. 결론 및 제언	65
1. 분석결과의 요약	65
2. 시사점 및 제언	68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정치교과서	17
〈표 2〉 분석준거: 본 연구의 분석 틀	21
〈표 3〉 분석준거: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23
〈표 4〉 분석준거: 단위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24
〈표 5〉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기준	25~26
〈표 6〉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예 - 유사토론형	27
〈표 7〉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예 - 제한적토론형	28
〈표 8〉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예 - 자유토론형	29
〈표 9〉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30
〈표 10〉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평가기준	31
〈표 11〉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예 - 내용분석	32
〈표 12〉 분석준거: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33
〈표 13〉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34
〈표 14〉 단위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37
〈표 15〉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39
〈표 16〉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 준거1	49
〈표 17〉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 준거2	55
〈표 18〉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 준거3	59
〈표 19〉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준거별 수준	64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 및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교육부, 1997: p.28). 이러한 성격을 지닌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교육부, 1997: p.29). 이러한 사회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근 사회과에서는 논쟁 문제 교육 또는 토론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토론학습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현대 민주주의에 필요한 민주적 태도의 요소로써 대화와 타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전득주, 1992: p.49; 어명하, 1997: p.130; 이재호, 2004: p.16). 그리고 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토론학습이 가장 적합하며, 토론학습을 통한 상호이해와 조정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토론은 민주 사회의 뿌리가 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최선

의 수단이며, 토론 참여자들이 협력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토론학습의 장점은 토론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태도나 예의를 매우 중요시 하며, 개념 학습과 학습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이다. 또한, 논거와 자료를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나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논리적 사고의 향상에도 적절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토론학습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듯 토론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서의 토론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토론식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활동이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토론활동 자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회과의 심화선택과목인 ‘정치’교과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적인 민주 시민성을 심화,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01: p.235). 개정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비판적사고력 등의 고급사고력¹⁾이 강조되면서 탐구활동이 대폭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치교과서는 본문 내용과 탐구활동을 주요 내용 요소로 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교과서에서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론활동 자료가 주로 탐구활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4종의 정치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나는

1) 고급사고력(Higher Order Thinking)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한 암기나 과거에 자기가 행동하던 방법을 넘어서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작용이다(차경수, 2004: p.212).

영역이 탐구활동이다.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훈련의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토론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의 자료를 분석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탐구활동에서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과 유형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토론활동을 유도하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는 토론학습 활성화라는 기본적 관점 하에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앞으로 토론활동 자료를 개선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 중에서 토론활동 자료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한국 사회에 토의민주주의의 요소인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론학습이 적합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해보았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주로 나타나는 토론활동 자료를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정치교과서의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數)와 토론활동 자료의 수(數)를 확인하여 전체 탐구활동 중에서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는 단원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셋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은 어떠한가?

넷째,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 중에서 토론활동 자료는 실제적으로 토론에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토론활동 자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정치문화, 정치사회화, 그리고 토론학습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토의민주주의 요소인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가 부족하고 이는 정치사회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학습이 적합하다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에서 토론학습의 중요성과 실태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토론활동 자료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론활동 자료가 단원별로 어떻게 분포하여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류해본다. 나아가,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검인정 4종의 정치교과서 탐구활동

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모두 분석한다.

셋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과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논의해보자’, ‘토론해보자’, ‘토의해보자’로 표현된 토론활동 자료를 찾아내어 분석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교과인 정치교과에 한하여 김인정 4종의 교과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덕성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의 자세를 꼽고 있다. 이런 사회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정치 교과는 중심적 역할을 하므로 정치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에 대한 양적분석과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러므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여러 활동유형 중에서 ‘토의해보자’, ‘논의해보자’, ‘토론해보자’로 표현된 자료를 토론활동 자료로 보았다. 그러므로 분석은 이들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은 내용분석 준거와 평가기준(Rubric)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토론활동이 가능한 토론활동 자료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을 평가기준(Rubric)에 따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분석을 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토의민주주의 요소로써 대화와 타협과 학교교육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경험이 토론학습을 통해 습득된다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토론학습의 실태와 토론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탐구활동 자료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겠다.

1. 학교교육과 민주적 태도에 관한 연구

1) 토의민주주의와 민주적 태도

오늘날 민주주의가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규모와 인구가 증가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란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잘 반영하여 정치할 수 있는 후보자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지역구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선출된 대표자이다. 하지만 저조한 시민 참여,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대중의 소외가 심화되면서 대의민주주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 대표들의 뜻대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비판을 받게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토

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Harbermas)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절차에 따른 토론과 결정에 기초한 토의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장명학, 2003: p.26). 그러므로 학자들은 토의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이 특히 중요한 민주적 태도라고 한다. 토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한다(유홍립, 2003: p.194). 시민들이 토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정치적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박승관, 2000: p.163). 또한,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토의의 과정은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는 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에 의한 통치’(government by the people)에 있다(이극찬, 1999: pp.498-499). 그러므로 민주주의체제에서 시민은 공공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표자들에게 위임되었던 의사결정권한의 많은 부분들이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김용철, 2005: pp.299-300). 심지어 하버마스(Harbermas)는 “토의정치의 절차가 민주주의의 과정의 핵심을 형성한다.”고까지 강조한다(장명학, 2003: p.24 재인용). 이렇듯 대의민주주의에서 토의민주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토론 및 토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자들이 민주적 태도로써 대화·타협·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자들의 민주적 태도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의 유연성, 동료시민에 대한 신뢰, 관용과 배려, 타협, 설득, 관용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민주적 시민 공동체 의식으로 중요하다. 이는 물론이고, 준법정신 및 질서의식, 권리의식, 정치 지도자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식, 실수를 인정하는 정직성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전득주, 1992: p.49; 어명하, 1997: p.130; 이재호, 2004: p.16; 심익섭, 2004: p.133 재인용). 더불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요소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자율성으로 대화와 타협, 타인의 의견 존중을 꼽고 있다(박지현, 2002: p.7 재인용).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요소인 대화, 타협,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고, 타협하며, 양보할 줄 아는 관용의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민주적 태도의 습득과 학교교육

그렇다면 토의민주주의에 맞는 이러한 민주적 태도는 어떻게 형성, 발전되는가?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그 사회와 질서에 관련된 정치문화를 배우고 익히면서 한 사람의 성숙된 정치적 인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정치문화란 정치적 가치, 믿음, 태도 등 그 사회구성원이 정치체제와 정치지도자에 대해 갖는 정치적 정향 및 성향의 총체를 말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치문화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로 정치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집합적 수준에서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성립과 유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란 정치문화로의 유도과정이며, 개인이 정치에 대한 성향이나 사고방식을 학습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이다(이규영, 2005: p.159).

정치사회화의 매체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학교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매체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정치체제와 정치체제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며 사회의 합의를 이룬 가치와 태도를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질서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한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사고와 행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치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유지와 정치발전에 공헌하며, 개인에게는 사회의 합의된 핵심적 가치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민주시민형성에 있어 중요한 청소년기에 조직적·체계적·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주정치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정치적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신념, 행동 등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학교는 사회 구성원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정치체제의 존속과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학교교육의 역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랭턴(Langton)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정치사회화의 매체로서 여러 집단이나 제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학교에서 가장 많은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라는 매체는 새로운 정치적 정향을 형성시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식적이고 계획된 수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정치적 신념을 가르치므로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용수, 2006: p.20 재인용). 또한, 도슨과 프레위트(R. Dawson & K. Prewitt)는 학교가 정치사회화에 가장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고 하였다. 학교는 조직적이고 중앙 통제적이며 일사불란한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천

희완, 1999: p.19).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역시 학교의 역할은 정치적 활동을 고무하는 지식·능력 및 선택감각을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공정미, 2006: p.6 재인용).

특히 한국에서는 학교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교육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 형성에 중요한 공식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치교육은 민주시민 양성과 정치참여에 필수적인 정치적 지식과 이론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장(field)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현실은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민주적 정치문화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수업방식이다. 학교 환경과 문화가 민주적이지 않고서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과 민주적 태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사회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해 학교교육은 민주주의에 합당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떠한 학습방법이 민주주의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 토론학습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검토

1) 토론학습의 의미와 교육적 효과

어떠한 학습방법이 민주주의에 적합한 학교교육이며, 민주적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까? 현대 사회는 매우 다원화된 사회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 양식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

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서로 간에 갈등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위들을 조화시키며, 협동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원활한 대화와 타협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최근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론학습을 통해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그렇다면 토론과 토론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딜론(Dillon)은 토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토론은 구성원들의 공동적 의문에 대하여 집단적인 문제제기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는 집단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답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견해들을 교환, 검토함으로써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평가나 판단, 그리고 결정, 결의, 혹은 행동 등을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김정효, 1997: p.13 재인용). 결국 토론은 의견이 여러 개로 나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허용하면서 개념을 명백하게 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가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차경수, 2000: p.147).

이와 같은 토론의 의미에 근거하면 토론학습이란 토론 참여자들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고 들으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수업의 형태이다. 다시 말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학습자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와 협동적인 사고에 의해 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이 주된 학습 활동인 수업방법을 말한다(김윤경, 2003: p.10).

최근의 개방적인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주도해 가는 탐구학습이나 토론학습이 권장되고 있다. 특히 토론학습은 사회구성원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서로 협의하면서 해결할 것이 요청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인 문제해결력, 의사표현력, 의사결정, 능동적 참여, 협동, 타협 등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토론학습은 절실히 요청된다(차경수, 2000: p.141). 뿐만 아니라, 좋은 토론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경험, 그리고 사고 작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일정한 학습 성과에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토론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하는 대화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활동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배경지식이 준비되어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토론활동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적으로 효과가 큰 토론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첫째로, 소집단 토론 수업은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합의와 타협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구트만(Gutmann)은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학교가 상호 존중하는 토론을 통한 학습을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 관용, 토의, 토론 등을 생명으로 하므로 이러한 능력의 함양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문제의 해결과정, 대안을 마련하는 선택과정, 즉 토론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갈등상황에서 관용의 발휘,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모두 토론과정에서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와 포겔만(Edwards & Fogelman)도 “학생들이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협력 및 개방적인 자세 등이 시민적 성향과 민주적 참여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환경 조건이라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습득하는데, 토론학습이 적합

하며, 토론학습을 통해 상호이해와 조정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노찬옥, 2004: p.219; 손승남, 2000: p.93; 추정훈, 2004: p.417; 변종현, 2003 p.255; 조기제, 2002: pp.105-106).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장에서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토론의 중요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토론학습의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토론학습의 중요성

교육과정²⁾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문서로, 모든 학교 교육의 토대가 된다.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교육의 목적, 성격,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평가 등의 학교 교실 수업의 모든 영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는 문제해결, 탐구학습의 실제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학습 요소를 보다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학습 내용은 상당 부분 줄여 개발되었다. 또한, 교사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수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여 고차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게 하 고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토의 및 토론학습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회과의 목적이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바람직한 민주시민양성이며 정치교과는 이에 핵심적인 과목이다. 또한, 교과서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을 권한다는 점에서 토의 및 토론학습의 중요

2) 교육과정이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교육평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투자, 예산, 행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육자료,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 등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교육 지원 관리 기능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역할을 한다(<http://www.moe.go.kr>).

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적 조사를 거치는 과학적 탐구방법에 의해 획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판단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뱅크스(Banks, J.A.)는 사회과의 교육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시민의 행동 중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의사결정 능력(decision-making)의 함양으로 보았다. 즉, 사실탐구와 가치탐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과 지성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사회과의 근본목표로 보았다(차경수, 2004: p.56).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므로 인지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실천시켜야 할 기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과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의 및 토론학습에 주목하였다. 토의 및 토론학습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 요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 제재, 문제, 쟁점 등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이 통합을 이루게 되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토의 및 토론의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자의 관심, 흥미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의 요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사실탐구와 가치탐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는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의 토론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겠다.

3) 토론학습의 실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각급 학교교육 현장에서 토론과 토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토론학습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우 잘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313명 중 94.6%의 교사들이 토의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과 수업 중 토의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일부 중 72.9%는 토의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토의학습의 효과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회과 수업 중 토의학습의 실시여부에 대한 결과는 195명 중 62.3%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토의학습을 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교사 중 95.5%가 환경이 마련되면 토의학습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이다(주인자, 2004: pp.85-88).

그렇다면, 토의 및 토론학습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발표를 꺼려하는 분위기, 학교교육에서 충분한 연습 부족,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의 습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연계하여 토론하는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한다(차경수, 2004: pp.172-173). 그 밖에도 권위주의적인 교육문화가 형성되어 학생들은 교사의 내용전달에만 익숙해져 있다. 게다가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의 및 토론능력이 부족한 것이

다(국정브리핑 2004.11.22).

이러한 문제 외에도 교사들이 구체적인 토의 및 토론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에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수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송창석, 2003: p.66). 또한 소집단 토의 및 토론학습을 하기에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많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토론학습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7차 교과서는 학생에게는 부담을 덜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교사에게는 자율성을 주고자 개발되어 탐구활동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실제 교실수업에서는 교과서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탐구활동이 과거 흥미유발, 단원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수준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다. 탐구활동이 교과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과 교사에게 수업의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업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항들도 있고,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학생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 교사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의 형식과 시간이 모호한 것들이 많아 대부분 교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김영희, 2005: pp.53-54; 김영, 2005: pp.62-64; 정미경, 2006: pp.75-77).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탐구활동 자료의 내용·방법·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과학교과에서는 탐구활동에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과에서는 탐구활동이 대폭 늘었음에도 탐구활동 관련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 더욱이 토론활동 자료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가 토론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정치교과서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1997년 12월에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 사회 영역에서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발된 정치교과의 교과서 4종이다. 정치교과는 11~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분석은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4종의 정치교과서는 알파벳 A, B, C, D 로 표기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정치교과서

구분기호	출판사	저자
A	대한교과서(주)	최병모 외 5인
B	법문사	김왕근 외 4인
C	(주)지학사	이승중 외 4인
D	(주)천재교육	강세중 외 5인

1) 왜 정치교과서인가?

교과서는 교사, 학생과 함께 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며, 교과서 그 자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으로 인식될 정도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윤경, 2000: p.110). 따

라서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정치수업에서 역시 정치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매우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정치교과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선택과목이다. 그러므로 정치교과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사회과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핵을 이루는 과목이다(교육부, 1997: p.209). 또한, 학습자가 자신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과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로써 토론활동의 경험이 사회과의 심화선택 과목인 정치교과에서 활발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왜 탐구활동인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와 같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시민을 민주 시민의 기본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갖게 되었다. 과거에 단원별 주제와 주제요소를 제시하던 것에서 기본적 지식, 기능과 기능의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결합한 성취목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내용의 양을 크게 축소하였다(교육부, 2001: pp.12-14).

탐구활동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등장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기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각 단원마다 한 개의 탐구활동이 나타

났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별로 1~2개 이상의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탐구활동 외에도 출판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둠활동, 열린 과제, Acropolis, people story, 생활속의 정치, 참여활동, 집중탐구, 활동과제 등이다. 이는 교사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능동적 활동을 유도하고 탐구력이나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과 같은 고급사고력 신장을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반영으로, 실제 정치교과서에서 탐구활동 자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다. 4개 출판사의 정치교과서 중 임의로 선택한 정치교과서의 경우 전체 287페이지 중에 58페이지에서 탐구활동 자료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는 전체 교과서페이지수의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교과 내용 중에 탐구활동 자료 외의 활동자료, 읽기자료, 차례, 단원 표지, 찾아보기, 기타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교과서 내용과 탐구활동 자료의 양이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탐구생활, 탐구수업, 탐구활동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탐구(Inquiry)라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찾아내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지식을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식이 발견되기 까지 거쳐야 했던 사고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탐구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발견(discovery),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의 탐구활동은 ‘탐구’가 수업에서 가능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탐구활동의 유형은 출판사별로 30~40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알아보자’, ‘제시하자’, ‘찾아보자’, ‘토의해보자’, ‘토론해보자’, ‘분석해보자’, ‘비교해보자’, ‘설명해보자’, ‘추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정리해보자’ 등의 형태는 자주 나

타나고 있는 예이다. 그 밖에도 ‘묶어보자’, ‘예측해보자’, ‘적어보자’, ‘연결해보자’, ‘완성해보자’, ‘판단해보자’, ‘평가해보자’, ‘표시해보자’, ‘모색해보자’, ‘비판해보자’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흥미유발 혹은 단원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수준을 넘어 교과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배우고 다양성과 다원화를 습득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론활동은 탐구활동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종의 출판사에서 토론활동 자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탐구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교과서 4종에 나타나고 있는 탐구활동(A 교과서와 D 교과서) 자료와 탐구(B 교과서와 C 교과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토의, 토론 및 논의 활동 자료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들 토의, 토론, 논의 자료는 토론학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앞으로, 출판사별로 탐구활동 혹은 탐구로 다르게 표기된 활동에 대해서 ‘탐구활동’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토의, 토론 및 논의로 표기된 활동 역시 ‘토론활동’으로 지칭한다. 이는 토론의 광의의 정의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따른 것이다.

2. 분석준거

학교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양적분석을 통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토론활동 자료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내용분석을 통해서도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

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민주 시민의 자질로써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토론학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나타나고 있는 토론활동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2가지를 분석 준거로 구성하였다.

첫째, 토론활동 자료가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판사별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와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과 단원별 분포, 그리고 유형에 대한 양적분석을 하였다.

둘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 중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양적분석의 결과로 확인한 토론활동 자료에 대해서 내용 분석을 통해 토론활동에 적합하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의 양적분석과 내용 분석의 주요 결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분석 틀

양적분석 준거	내용분석 준거
1. 정치교과서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은 어떠한가?	1.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2. 정치교과서 단원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는 어떠한가?	2. 대화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3. 토론활동 자료는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3.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분석 준거의 범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론활동 자료의 양적분석

토론활동의 양적분석을 위해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는 한 가지 주제에 포함된 여러 가지 다른 학습활동을 요구하는 과제들을 분리하여 합한 수로 하였다. 이는 실제로 학습활동을 요구하는 자료가 된다. 각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탐구활동 자료 안에는 2~5개의 정도의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탐구활동 자료 외에도 각 출판사의 정치교과서는 ‘모둠활동’, ‘참여활동’, ‘생활 속의 정치’, ‘people story’ 등의 보충자료에서도 학습활동 과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보충자료이므로 탐구활동 자료의 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활동 자료는 탐구활동 자료의 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1)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출판사별로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와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수를 조사하여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을 알아본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탐구활동 자료 중에서 토론활동 자료의 수를 측정하여 다음의 표의 형식에 맞추어 비중도³⁾를 알아본다. 토론활동 자료는 주어진 주제 또는 예시 글 등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일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 발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찬·반 등의 입장을 정하거나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3) 비중도(%) = 토론활동 자료의 수 /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 × 100
(단,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표현하도록 하는 탐구활동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이야기해보자’, ‘발표해보자’, ‘말해보자’ 등의 유형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자료는 교사의 재량이 아니고서는 개인적인 활동 수준으로 지나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의해보자’,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 등과 같이 토론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탐구활동 유형만을 토론활동 자료로 분류하였다.

〈표 3〉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출판사	탐구활동 자료의 수	토론활동 자료의 수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A			
B			
C			
D			

(2) 단위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가 각 단위별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분포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의 표의 형식에 따라 출판사별로 검토해보았다.

〈표 4〉 단원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단원		출판사	A	B	C	D	계
I. 시민 생활과 정치	1. 국가와 정치 생활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3. 민주 정치의 발전						
	4.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소계							
II. 정치 과정과 참여	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2. 선거와 참여						
	3. 정당과 이익 집단						
	4. 여론과 언론						
소계							
III.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1. 헌법의 이념과 원리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통치 기구						
소계							
IV. 국제 사회와 정치	1. 국제 사회의 발달						
	2.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3. 국제 관계의 변화						
	4.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소계							
V. 정치 발전의 과제	1. 정치 발전의 의미						
	2.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3. 민주적 정치 문화						
	4. 민족 통일의 과제						
소계							
계							

(3)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토론활동 자료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교과서 본문과 제시문에서 간단하게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토론형(pseud discussion), 둘째는 과제와 제시문에서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선택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근거를 밝히는 제한적토론형(restrictive discussion)이다. 셋째는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유토론형(bull session)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아래 <표 5>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토론활동 자료를 구분하여 토론활동 유형별 비중도(%)를 산출하여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서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표 5>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기준

분류	내 용
유사토론형	정치교과서의 본문 내용과 탐구활동에 제시된 자료에서 토론활동 자료의 답을 간단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반영할 여지없이 일방향의 사고를 유도한다. 또한, 한정된 사고를 하게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토론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정치교과서 본문내용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단순한 학습 확인만을 유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유사토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내 용
제한적토론형	<p>‘찬성 혹은 반대’, ‘그렇다 혹은 아니다’ 등의 두 가지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정하거나 제시문에 나타난 2가지 이상의 입장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제한적토론형은 자신의 입장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이 유형은 교과서가 의도하는 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한적토론형은 수업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이지만 학생들의 견해를 제시문의 한 가지로 수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사토론형에 비해 선택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고 더 나은 방안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여 의견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토론형으로 분류하였다.</p>
자유토론형	<p>토론활동으로 주어진 주제 또는 예시 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밝히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말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자유토론형의 유형은 정치 교과서 본문 내용과 탐구활동 자료의 제시문외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p>

앞의 <표 5>와 같이 토론활동 자료의 분류에 해당하는 유사토론형, 제한적토론형, 자유토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6> 토론활동 자료의 예 - 유사토론형

분류	토론활동 예시
유사 토론 형	<p><교과내용> 정치참여는 왜 중요할까?</p> <p>민주 정치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의사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여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정책 결정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그러나 시민이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참여에 소극적이면, 정치는 전체 시민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에 대하여 무책임하거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집행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시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p> <p>탐구활동. 정치 참여는 왜 중요할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1: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들은 자신과 사회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 따라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해. ● 시민2: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회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시민들은 공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어. 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독재를 방지할 수 있어. </div> <p>3. 시민1의 생각이 확산될 때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C 교과서 p.62 -</p>

<표 6>의 토론활동 자료는 교과내용에서 시민이 정치참여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일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어,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은 시민1의 생각이 확산될 때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외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손쉽게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담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나쁘다는 편중된 사고를 하게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토론활동을 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표 7> 토론활동 자료의 예 - 제한적토론형

분류	토론활동 예시
제한 토론 형	<p>탐구활동. 정당 정치의 여러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북한의 경우 노동당 이외의 정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권을 맡는 것은 항상 노동당이다. • 사례2: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에서 경쟁하며, 승리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최근 공화당이 집권하였다. • 사례3: 독일의 경우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 간의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최근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 정권이 들어섰다. <p>2. 우리나라의 유형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제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B 교과서 p.88 -</p>

<표 7>의 토론활동 자료는 제시문에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에 대한 예로 북한, 미국,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형에 대해 묻고 있다. 이는 3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한적토론형으로 보았다. 북한의 유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외되면 결국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8> 토론활동 자료의 예 - 자유토론형

분류	토론활동 예시					
자유토론형	<p>탐구활동. 왕따현상</p> <p>다음은 우리의 생활양식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알아보기 위한 표이다. 표를 완성하고 학급 전체의 통계를 작성하여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생활양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p>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항 목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나는 자신보다 내가 속하여 있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가 누구이건 차별하지 않는 편이다.						
- B 교과서 p.25 -						

<표 8> 토론활동 자료는 자유토론형의 사례이다. 이 토론활동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아 자유토론형의 예로 들었다.

<표 5>의 기준에 따라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음에 제시한 <표 9>의 형식에 따라 출판사별로 토론활동 자료가 각각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고 그 비율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표 9>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비율: %)

출판사 분류	A		B		C		D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유사토론형									
제한적토론형									
자유토론형									
계									

2)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내용분석에서는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 중에서 실제로 토론학습에 도움이 되는 토론활동 자료를 분류해 내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 경험, 사고 작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토론활동 자료가 토론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토론의 과정에서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화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며, 학교 여건상 현실적

으로 가능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배경지식이 준비된 토론활동 자료를 바람직한 토론활동 자료로 보았다. 따라서 다음의 <표 10>에 제시한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평가기준(Rubric)에 따라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표 10>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평가기준(Rubric)

수준 준거	미흡	보통	우수
1.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본문 내용과 토론활동 제시문에서 토론활동 자료의 답을 확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한 내용 혹은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제시된 입장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활동에서 주어진 주제 또는 제시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그에 따른 논리적인 판단 근거를 유도한다.
2. 대화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히 각각의 입장 및 견해만을 밝히는 활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 다른 견해를 밝히고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는 활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도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하도록 합의된 의견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3.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활동의 주제 혹은 내용이 학습 내용 전달 그 자체를 위한 활동으로 배경지식이나 정보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으며 1차시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활동의 주제 혹은 내용이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토론활동을 위한 학습준비를 필요로 하여 1차시 수업시간에 하기에 부적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활동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충분한 정보에 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 있어 1차시 수업시간 내에 학습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앞의 <표 10>의 평가기준(Rubric)에 따라 다음의 토론활동 자료를 살펴 보겠다.

<표 11> 토론활동 자료의 예 - 내용분석

토론활동 예시	준거	평가
<p>탐구활동. 국회의원의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p> <p><제시문 2> 선거구 제도에 관한 논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행복당 현재,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역에 행복당 의원이 한 명도 없고, 반대로 ◇◇지역에서는 사랑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p> <p>사랑당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p> </div>	1	보통
	2	우수
<p>3. 제시문2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절한 선거구 제도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A 교과서 p.87 -</p>	3	우수

위의 <표 11>의 토론활동 자료는 첫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의 준거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행복당과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사랑당의 두 입장이 대립하여 나타나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우리나라에 적절한 선거구 제도를 찾는 것이므로 학습한 내용과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제시된 입장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또한, 행복당의 주장은 사랑당의 주장보다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가치중립적인 제시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대화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의 준거에 대해서는 ‘우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선거구 제도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밝히고, 타인의 주장을 관용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준거에 대해서도 ‘우수’로 평가할 수 있다. 소단원 ‘4.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내용인 선거구 제도와 관련한 물음으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표 10>의 평가기준(Rubric)에 따라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모든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에 제시한 <표 12>의 형식에 따라 출판사별로 토론활동 자료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그 비율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표 12>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비율: %)

준 거	A		B		C		D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미흡									
보통									
우수									
계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분석의 준거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IV. 정치교과서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1. 토론활동 자료의 양적분석 결과

1)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교과서 탐구활동 자료의 수와 탐구활동 유형 중 토론활동 자료의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출판사별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출판사	탐구활동 자료의 수	토론활동 자료의 수	토론활동 자료의 비중도(%)
A	224	21	9.4
B	291	45	15.5
C	159	12	7.5
D	167	11	6.6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 자료의 수는 출판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별 탐구활동 자료의 수는 B 교과서 > A 교과서 > D 교과서 > C 교과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B 교과서가

29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C 교과서가 159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B 교과서는 C 교과서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탐구활동 자료의 수는 출판사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토론활동 자료의 수는 탐구활동 자료의 수가 가장 많았던 B 교과서가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B 교과서 > A 교과서 > C 교과서 > D 교과서 순으로 나타났다. C 교과서와 D 교과서의 경우 토론활동 자료의 차이가 1개로 각각 12개, 11개가 나타났다. 대체로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에 비례하여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토론활동 자료의 수는 탐구활동 자료의 수보다 출판사별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B 교과서는 45개, D 교과서는 11개로 두 교과서 사이에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어느 출판사의 정치교과서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토론활동 자료를 접하는 기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을 살펴보면, B 교과서의 토론활동 자료가 15.5%로 유일하게 10%가 넘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A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의 토론활동 자료는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탐구활동의 유형이 출판사별로 30~40개 정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표현만 다를 뿐 대체로 교과지식을 확인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의 활동임을 감안할 때 적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토론활동 자료의 양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 내외의 수치만으로도 토론활동 자료는 탐구활동 내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사회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교과서의 토론활동 자료에서 대화와 타협의 경험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적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단원별로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단원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출판사별로 정치교과서의 탐구활동 중 토론활동 자료가 어느 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14>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단원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면,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모두 단원 ‘Ⅱ. 정치 과정과 참여’에는 토론활동 자료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C 교과서와 D 교과서의 소단원 ‘Ⅱ. 4. 여론과 언론’에는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단원과 비교해 보면, 가장 고르게 토론활동 자료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단원별로 토론활동 자료의 총계를 살펴보면, ‘Ⅰ. 시민 생활과 정치’에서는 토론활동 자료가 2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단원 ‘Ⅱ. 정치 과정과 참여’와 ‘Ⅴ. 정치 발전의 과제’에는 각각 20개씩의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났다. 반면, 단원 ‘Ⅲ.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와 ‘Ⅳ. 국제 사회와 정치’에서는 각각 11개와 12개로 단원 ‘Ⅰ. 시민 생활과 정치’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원 ‘Ⅰ. 시민 생활과 정치’, ‘Ⅱ. 정치 과정과 참여’와 ‘Ⅴ.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는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의 역할, 선거와 참여, 정치발전의 과제 등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단원 ‘Ⅲ.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와 ‘Ⅳ. 국제 사회와 정치’의 헌법, 국민의 권리, 국제관계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일로 시민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전통적 교육과 같은 인식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표 14〉 단원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

단원		출판사				계
		A	B	C	D	
I. 시민 생활과 정치	1. 국가와 정치 생활	1	5	1		7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1	5		1	7
	3. 민주 정치의 발전		5		2	7
	4.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4		1	5
소계		2	19	1	4	26
II. 정치 과정과 참여	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1	1	1	1	4
	2. 선거와 참여	2	2	2	1	7
	3. 정당과 이익 집단	1	2	1	1	5
	4. 여론과 언론	1	3			4
소계		5	8	4	3	20
III.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1. 헌법의 이념과 원리	1	1	1	2	5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2			3
	3. 통치 기구	1	1	1		3
소계		3	4	2	2	11
IV. 국제 사회와 정치	1. 국제 사회의 발달	2	2			4
	2.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1	1	1		3
	3. 국제 관계의 변화	1	1		2	4
	4.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1
소계		5	4	1	2	12
V. 정치 발전의 과제	1. 정치 발전의 의미	1	3			4
	2.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1	2	1		4
	3. 민주적 정치 문화	1	4	1		6
	4. 민족 통일의 과제	3	1	2		6
소계		6	10	4		20
계		21	45	12	11	89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A 교과서와 B 교과서는 단원별로 비교적 고르게 토론활동 자료가 분포하였다. 이는 토론활동 자료가 다른 두 교과서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C 교과서와 D 교과서는 각각 9개의 소단원, 11개의 소단원에서 토론활동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D 교과서의 단원 ‘V.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는 토론활동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토론활동 자료의 수를 떠나서 단원 전체에서 토론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사고의 여지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B 교과서의 경우 단원 ‘I. 시민 생활과 정치’에서는 다른 단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C 교과서의 경우 단원 ‘II. 정치 과정과 참여’와 단원 ‘V. 정치 발전의 과제’에는 4개의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나고, 나머지 단원에서는 1~2개의 토론활동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B 교과서처럼 토론활동 자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에게 토론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고르게 토론활동 자료가 분포된 B 교과서 역시 소단원 ‘IV. 4.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에는 토론활동 자료가 없었으므로, 토론활동 자료의 단원별 분포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는 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을 분류해보았다.

<표 15>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비율: %)

출판사 분류	A		B		C		D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유사토론형	4	19.0	19	42.2	4	33.3	6	54.5	37.1
제한적토론형	7	33.3	8	17.8	1	8.3	3	27.3	21.3
자유토론형	10	47.6	18	40.0	7	58.4	2	18.2	41.6
계	21	100	45	100	12	100	11	100	100

앞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모두 ‘토론해보자’, ‘토의해보자’, ‘논의해보자’의 형태로 표현되어 토론활동을 유도하는 토론활동 자료는 유사토론형, 제한적토론형, 자유토론형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유사토론형의 비율은 D 교과서(54.5%) > B 교과서(42.2%) > C 교과서(33.3%) > A 교과서(19.0%) 순으로 나타났다. D 교과서의 경우 전체 토론활동 자료가 11개인데, 반 이상이 유사토론형이었고, B 교과서의 경우 토론활동 자료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양적으로 우세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했으나 45개 중 19개의 토론활동 자료가 유사토론형으로 나타났다. A 교과서와 C 교과서의 비율은 다른 두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으나 토론활동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한적토론형 중에도 토론활동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인 제시문 혹은 과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아 유사토론형에 가까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유사토론형의 비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교과서 본문 주제에 대한 부가적 인식이 나 이해를 확인하는 활동 즉,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 토론활동 자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토론형의 비율은 C 교과서(58.4%) > A 교과서(47.6%) > B 교과서(40.0%) > D 교과서(1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율로 살펴보면, C 교과서가 가장 우세하나, 토론활동 자료의 수에 있어서는 B 교과가 18개로 가장 많고, A 교과서가 10개로 C 교과서의 7개보다 우세하다. D 교과서의 경우에는 11개의 토론활동 자료 중에서 정답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자유토론형이 2개에 불과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탐구활동 자료 중 토론활동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내외로 적은 수치였는데, 토론활동 자료 분류에 따르면 자유토론형에 속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유형 분류별 평균분포비율을 살펴보면, 자유토론형(41.6%) > 유사토론형(37.1%) > 제한적토론형(21.3%)으로 나타났다. 자유토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개수로는 자유토론형이 37개 유사토론형이 33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가 탐구활동 전체가 아닌 탐구활동의 여러 형태 중 토론활동 자료에 대해서만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부분이 자유토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유형 분류 결과에 따르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에도 자유로운 토론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론활동 자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실제 사례들을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유사토론형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사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다수결 원리와 소수 의견의 존중’은 토론활동 자료 바로 앞의 교과내

용에서 다수결의 전제조건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수를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다수결의 원리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다수결 원리와 소수 의견의 존중	
<p><교과내용>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견을 물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 원리이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수결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p> <p>그러나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수를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p>	
탐 구 활 동	<p><주제> 다수결은 만능인가?</p>
	<p><제시문>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그 결과에 따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민 투표에는 독재를 초래하거나 헌정(憲政)을 파괴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p> <p>나폴레옹이 종신 집정관이 된 1802년의 국민 투표,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위한 1804년의 국민 투표, 루이 나폴레옹에게 새 헌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1851년의 국민 투표,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위한 1852년 11월의 국민 투표 등은 모두 국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지만, 국민 투표 제도가 민주 정치를 말살한 실례이다.</p> <p>또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실시했던 여러 번의 국민 투표도 국민 투표의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히틀러는 국민 투표로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를 통합하여 총통이 되었다. 그는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 정치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로 영구 집권 구도를 정착시켰다.</p>
	<p><과제> 다수결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C 교과서 p.222 -</p>

다음은 두 번째 유사토론형의 사례 ‘사법권의 독립’ 이다.

2. 사법권의 독립	
<p><교과내용>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상 여러 가지 제도가 보장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다. 그러면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이 어떤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자.</p>	
탐 구 활 동	<p><주제> 헌법조문으로 알아보는 사법권의 독립</p>
	<p><제시문>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제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제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p>
	<p><과제> 각 규정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위 규정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p>
<p><교과내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사법 작용으로서의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 서서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세력도 재판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p> <p>따라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상급 법원이나 소속 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으며, 소송 당사자나 그 밖의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사법권의 독립이라 한다.</p> <p>사법권의 독립이 실현되려면,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이 제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인 법관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임기를 헌법에 규정하여 법률로도 함부로 고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여, 아무나 법관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에 의해서는 파면될 수 없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p>	
<p>- B 교과서 p.158 -</p>	

이 토론활동 자료 역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토론활동 자료의 앞, 뒤 교과내용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있다.

이와 같이 이들 유사토론형은 정치적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위해 정치교과서 본문의 내용에 이미 명료하게 답이 시사되어 있거나 혹은 토론활동 제시문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간단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들 유사토론형은 정치교과서의 본문내용을 토론활동 자료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고, 사례를 통해 더욱 이해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탐구활동 여러 유형 중 토론활동 자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활동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론활동으로 표현하였지만, 토론과는 전혀 무관한 활동이 토론활동 자료로 주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사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방향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제한적토론형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제한적토론형은 2가지 이상의 방안, 입장이 제시문에 수록되어 그 중 한 가지 입장을 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밝히는 활동이다. 유사토론형에 비하면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두려움이 있거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제시문의 선택사항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시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입장들이 때로는 비중이 다르게 제시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제시문 중에서 교과서가 답으로 유도하는 한 가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산하기에는 제한적토론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제한적토론형의 사례 ‘민주 정치의 원리’는 A의 사고방식과 B의 사고방식 둘 중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이유를 밝히는 활동이다. 제시문을 읽어보면,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1. 민주 정치의 원리	
탐 구 활 동	<주제> 국가에 관한 상반된 견해
	<p><제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의 사고방식: 국가는 신성하고 절대적이다.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의 어느 누구도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군주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군주의 신하이자 종이다. 인간은 자제력이 약하고 비합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일삼는다. 군주는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하여 현명하고 사려깊은 판단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군주의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 B의 사고방식: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 낸 집단이다. 국민의 의사 없이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국가 내의 어떤 개인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저항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스스로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인간은 감정을 자제하여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복종할 뿐이다.
	<p><과제>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다 적합한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토론해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B 교과서 p.32 -</p>

다음의 두 번째 제한적토론형의 사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새봄이와 푸름이의 견해 두 가지 중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말하는 활동이다. 토론활동의 주제가 정치 참여의 중요성으로 나타나 있고, 푸름이가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모두 제시문의 두 가지

입장이 고르지 않아 선택사항이 한 가지와 다름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치 참여의 중요성	
탐 구 활 동	<주제> 시민들은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p><제시문>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p> <p>새봄 정치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를 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지도자의 왜곡된 정치 선전에 영향 받기도 쉬워서 이런 사람들의 정치는 오히려 민주 정치를 해칠 우려가 있어.</p> <p>푸름 그렇지 않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대표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을 그만큼 잃게 되는 셈이야.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지에 가까운 것일지 몰라도 그들이 참여의 경험을 쌓으면서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할 수밖에 없어.</p> <p>새봄 그렇게 하면서까지 정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을까? 정치에 무관심한 것, 즉 정치를 경멸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일 수 있어. 그리고 경솔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무관심한 편이 나아. 또, 무분별한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정쟁이나 분열,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어.</p> <p>푸름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방치한다면 정부는 마침내 무책임하고 거만하게 날뛰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위정자들에게 의 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유권자에 대한 봉사의 태도도 갖게 할 수 있어. 그래야 민주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 시민들은 당연히 그들의 생존에 관계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p>
	<p><과제> 새봄이와 푸름이의 견해 가운데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토론해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A 교과서 p.68 -</p>

사회 과목은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공식에 따라 정답을 찾아내는 과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유사토론형, 제한적토론형은

토론활동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자료였다. 다음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자유토론형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자유토론형 사례 ‘자유 민주주의’는 제시문에서 12·12 사태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해 볼 수 있다.

1. 자유 민주주의	
탐 구 활 동	<주제> 12·12 사태 이후 억압된 국민의 자유
	<제시문> <p>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분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에게서 사후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비상 계엄 하에서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정치 발전과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공직자 숙정, 출판 및 인쇄물 제한, 삼청 교육 등 지배 구조의 재편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였다.</p> <p>1980년 7월 30일 교육 개혁 조치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리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 새로운 언론 풍토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언론 사상 유례없는 언론 기관 대개편을 단행하였다.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전국의 언론 기관 64개 중에서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 매체를 통폐합하고 언론 검역을 실시하였다.</p>
	<과제> 오늘날 이러한 시도가 재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 - C 교과서 p.115 -

다음의 두 번째, 자유토론형의 사례 ‘통일 후의 우리나라 모습’은 독일 통일과 변화의 모습에 관련한 제시문을 보고 문제점과 예방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시문을 토대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 후의 우리나라 모습	
탐 구 활 동	<주제> 독일 통일과 변화 모습
	<p><제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독일의 실업자는 4백47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11.7%이다. 그러나 동독지역을 실업률이 18.1%로 서독 지역의 10.2%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다. 독일 정부는 통독 후 동독 지역 경제 재건에 연평균 1천6백억 마르크(80조 원)을 투자하였다.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국내 총생산(GDP)의 5%수준인 1조1천7백억 마르크나 된다. 그 덕에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되었고 임금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기반의 붕괴는 여전히 심각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신문, 1997년 9월 3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학생들은 2천여 개의 서독식 단어를 따로 배워야 하였다. 어휘와 사용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영어·철학·종교 등을 새로 익히느라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 동독 지여의 한 학생의 불만이다. 분단으로 인한 언어와 사고(思考)의 이질감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나지움의 한 교사도 “동독 시절 마르크스 레닌주의 기본 학습과 러시아 어, 스포츠 등이 교사의 필수 과목이었다. 통일 후 생소한 자유, 민주, 정치, 법률, 시장, 경제 등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말하였다. <p style="text-align: right;">(○○신문, 1997년 10월 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독일의 변화의 바람은 옛 동독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1998년 독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GDP)은 4만 6,400마르크이다. 1989년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만 8,700마르크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 후 8년 만에 소득이 2.5배나 늘어났다. <p style="text-align: right;">(○○신문, 1999년 11월 8일)</p>
	<p><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B 교과서 p.252 -</p>

지금까지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 분류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치교과서에서 발췌한 유사토론형, 제한적토론형의 토론활동 자료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에 근거한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교과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토론활동 자료가 주제 매물적이고 내용 제한적

(content-bounded)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간용, 2005: p.409).

결론적으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상당수가 본문 내용을 강화하고, 재생하고, 반복하며,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노력도 있어왔다. 그러나 정치교과서 개정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한 탐구활동 자료가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다.

2.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결과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방식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지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토론활동 자료가 과연 학생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과 상충되는 견해와 합의에 이르는 경험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측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이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도하고 있는지 <표 10>의 평가기준(Rubric)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가지 수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 준거1

(비율: %)

준거 1	A		B		C		D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미흡	8	38.1	23	51.1	6	50.0	7	63.6	49.5
보통	7	33.3	7	15.6	1	8.3	4	36.4	21.3
우수	6	28.6	15	33.3	5	41.7	0	0.0	29.2
계	21	100	45	100	12	100	11	100	100

우수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를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C 교과서(41.7%) > B 교과서(33.3%) > A 교과서(28.6%)로 나타났다.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를 살펴보면 D 교과서(63.6%) > B 교과서(51.1%) > C 교과서(50.0%) > A 교과서(38.1%)로 나타났다. D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우수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자료들이므로 나타났다. 개수를 살펴볼 때, B 교과서가 15개로 우수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미흡한 수준의 자료역시 23개로 50%이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와 보통에 속한 토론활동 자료가 가장 많은 A 교과서가 4개 교과서 중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장 잘 유도하고 있는 반면, D 교과서는 토론활동 자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가 많이 나타났다.

평균분포비율을 살펴보면, 미흡(49.5%) > 우수(29.2%) > 보통(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형분류에서 유사토론형과 제한적토론형의 비율이 상당수 차지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토론활동 자료들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도하기보다는 단순히 교과내용을 반복하고 정리하는 효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내용분석 평가기준(Rubric)에 따른 실제 토론활동 자료들을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리 나라의 외교 과제							
<주제>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에 대해 토의해 보자.						
<제시문>	<p>1단계 비판</p> <p>각 분야별 외교 현황을 최근의 신문을 통해 조사하여 비판점을 정리해 보자.</p> <p><자료1> 우리 나라가 당면한 외교 현황(2001년 현재)</p> <table border="1"> <tr> <td>통일·안보 (1모둠)</td> <td>-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td> </tr> <tr> <td>경제·통상 (2모둠)</td> <td>-한·일 어업 협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협정 이후 어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중국산 수입 마늘의 관세율을 높이자 중국이 우리 나라 정보 통신 업계의 수출을 어렵게 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을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td> </tr> <tr> <td>문화 (3모둠)</td> <td>-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최근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협상을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민간 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td> </tr> </table> <p>2단계 상상(미래신문 만들기)</p> <p>제1단계에서 수집한 비판적 국면에서 중점 주제를 선정하여 토의하면서, 문제점이 극복된 이상적 상태를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보자.</p> <p><자료2> 미래신문 예시</p>	통일·안보 (1모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통상 (2모둠)	-한·일 어업 협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협정 이후 어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중국산 수입 마늘의 관세율을 높이자 중국이 우리 나라 정보 통신 업계의 수출을 어렵게 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을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	문화 (3모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최근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협상을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민간 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통일·안보 (1모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통상 (2모둠)	-한·일 어업 협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협정 이후 어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중국산 수입 마늘의 관세율을 높이자 중국이 우리 나라 정보 통신 업계의 수출을 어렵게 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을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						
문화 (3모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최근 외규장각 고문서의 반환 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협상을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민간 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탐구활동

탐 구 활 동	<p><제시문> 3단계 현실화</p> <p>제2단계에서 상상해 본 이상적인 상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정리해 보자.</p> <p><자료3> 우리 나라의 외교 과제</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안보 (1모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위해 주변 4대 강대국의 협조를 구한다(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국가의 안정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함). -여·야 및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안보 외교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상호주의를 실천한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제·통상 (2모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로 만든 상품 개발(예: 쌀로 만든 술, 과자) -최근 동양 식(食) 습관 추구 붐에 따른 건강 식품 개발 -판로 개척(세계시장) -광고와 마케팅 전략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 (3모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 인터넷과 정보 매체를 통해 잃어버린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홍보 반환을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반환 요구 위해 - 국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철저 </td> </tr> </table>	안보 (1모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위해 주변 4대 강대국의 협조를 구한다(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국가의 안정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함). -여·야 및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안보 외교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상호주의를 실천한다. 	경제·통상 (2모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로 만든 상품 개발(예: 쌀로 만든 술, 과자) -최근 동양 식(食) 습관 추구 붐에 따른 건강 식품 개발 -판로 개척(세계시장) -광고와 마케팅 전략 	문화 (3모둠)
안보 (1모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위해 주변 4대 강대국의 협조를 구한다(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국가의 안정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함). -여·야 및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안보 외교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상호주의를 실천한다. 					
경제·통상 (2모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로 만든 상품 개발(예: 쌀로 만든 술, 과자) -최근 동양 식(食) 습관 추구 붐에 따른 건강 식품 개발 -판로 개척(세계시장) -광고와 마케팅 전략 					
문화 (3모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 인터넷과 정보 매체를 통해 잃어버린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홍보 반환을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반환 요구 위해 - 국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철저 					
	<p><과제> 보람이네 반과 각 모둠이 우리 나라의 외교 과제에 대해 탐구한 과정을 참고하여, 모둠별로 특정한 외교 분야를 선정하고, 위에 제시한 단계(비판, 상상, 현실화)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를 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A 교과서 p.220 -</p>					

이 토론활동 자료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준거에 대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한 자료이다. 학생들에게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과제’라는 한 가지 큰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안보, 경제·통상, 문화 3가지 모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또한, 각 분야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토론활동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토론활동 자료이다.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탐 구 활 동	<주제>	학생 자치 원리의 방식
	<제시문>	<p>형철이네 학급에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학급의 운영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말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가 민주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이니만큼 학급의 운영도 학생 자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학생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안 A: 어떤 것이든 학급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급 전체 학생이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방안 B: 각 분단별로 분단 대표를 뽑아 학급 의회를 구성하고, 학급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해결을 요하는 모든 문제를 학급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학급 의회는 각 분단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선거 원칙에 따라 분단별로 1명씩 선출한 대표로 구성한다. • 방안 C: 방안 A와 방안 B를 모두 적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방안 B에 따라 결정하고, 담임선생님이나 반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방안 A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과제>	<p>세 가지 방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비교 토의해 보고,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를 결정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B 교과서 p.51 -</p>

이 토론활동 자료는 제시문에서 3가지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과제에서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3가지 방안 외의 다른 방안도 충분히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로 제한하여 수렴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물론 학습내용을 적용하고 분석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유로운 판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

럽다.

다음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한 토론활동 자료로 ‘아테네의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단원에서 아테네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토론활동 자료이다. 이 토론활동 자료는 제시문에서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었던 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와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경제적·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 토론활동 과제의 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활동 자료들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도하는 토론활동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교과서의 본문내용을 토론활동 자료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고, 사례를 통해 더욱 이해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인식되지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러 수 있는 토론활동을 유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테네의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교과내용>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민은 다스리는자인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점에서 현대 민주 정치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신분이나 성별(性別)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지만, 아테네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아테네의 도시 국가는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한 곳에 모여 직접 공공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는 정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 민주 정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신 공공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정치 형태가 보편적이다.

탐 구 활 동	<주제>	아테네의 시민, 그들은 누구인가
	<제시문>	<p>아테네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만을 의미했다. 따라서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의 최고 전성기인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시민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여 부모 모두가 아테네인일 경우로 제한하였다.</p> <p>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의 시민은 약 3만 명, 그리고 여기에 가족을 합하면 약 12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외에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1만 명 정도 있었으며, 노예는 시기에 따라 4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일 때도 있었다. 이렇게 아테네 인구 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었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이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p> <p>민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었다. 일단 생산적인 일에서 벗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민회에서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달려나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다. 시민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이러한 여유는 노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p> <p>당시 아테네 시민은 한 사람당 평균 두세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동은 노예에게 맡기고 시민은 정치, 학문, 체육에 전념했다. 이것이 시민의 이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예와 함께 일하기도 했지만 육체적인 노동은 항상 노예의 몫이었다. 시민은 이렇게 여유 있는 신분으로서 민주주의를 향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향유한 민주주의는 여성, 외국인, 특히 노예를 배제한 제한된 민주주의였다.</p>
	<과제>	<p>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국가에서 아테네와 같이 직접 민주 정치가 실현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토의해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D 교과서 p.40 -</p>

2) 대화 능력의 향상 측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두 번째 내용분석 준거로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교환이나 타협을 요구하여 대화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 준거2

(비율: %)

준거 2	A		B		C		D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미흡	0	0.0	0	0.0	0	0.0	1	9.1	1.1
보통	10	47.6	21	46.7	5	41.7	6	54.5	47.2
우수	11	52.4	24	53.3	7	58.3	4	36.4	51.7
계	21	100	45	100	12	100	11	100	100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D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A, B, C 출판사 모두 50% 이상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토론활동의 과정에서 의견교환은 물론 타협하여 합의된 결론에 이르게 하여 토론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들을 발표하여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 들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토론활동 자료도 47.2%에 달했다. 평균분포비율을 살펴보면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는 D 교과서에서 1

개가 나타났을 뿐 보통 수준이 47.2%, 우수한 수준이 51.7%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이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라는 점에서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교과서의 실제 토론활동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 각각의 수준에 따른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의무의 종류와 내용	
탐 구 활 동	<주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요시되고 있는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p><제시문> 자료7. 재산권 보호나, 환경 보전이나?</p> <p>부산시가 해운대구의 명물 ‘달맞이고개’ 보존을 위해 건축 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자 사유지 지주들이 이에 반발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달맞이고개 중 아직 훼손되지 않은 달맞이길 아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건축 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지역 땅의 80%가 사유지라는 점, 지주들은 이미 각종 음식점과 아파트 등 건물이 뺏뺏이 들어선 달맞이길 상부와의 형평성을 들이대면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잇따라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신문, 2001년 10월 4일 -</p>
	<p><과제> 자료 7과 같이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A 교과서 p.152 -</p>

이 토론활동 자료는 대화 능력의 향상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준거에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다. 국민의 의무와 종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위와 같이 신문 기사를 통한 실제 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토론활동 자료는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 보호와 국민의 의무인 환경 보전의 대립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것이다. 재산권을 주장하는 학생과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학생들, 그 밖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주장을 개방된 자세로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활동 자료이다.

다음은 대화 능력의 향상에 보통수준의 도움이 되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어떤 정부형태가 좋을까		
탐 구 활 동	<주제>	프랑스 대통령제의 특징
	<제시문>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나 제3, 4공화국에서 수시로 내각이 바뀌에 따라 큰 정치적 혼란을 겪은 프랑스에서는, 1958년에 드골이 주도하여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제5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드골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내각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권한에는 수상의 임면권과 법률안 공포권등이 있으며, 비상시에는 임시 독재권이라고도 하는 강력한 비상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에 대하여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를 신대통령제 혹은 강력한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과제>	프랑스식 대통령제가 실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 보자.

- D 교과서 p.58 -

이 토론활동 자료는 제시문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별칭에 대해 나타나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을 학습한 후 나타난 자료로 다른 정부형태와 비교하여 프랑스식 대통령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의 토론활동 자료는 대화 능력의 향상에 미흡한 수준의 자료로 전체 토론활동 자료 중 유일한 자료이다. 전과자가 물에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모둠과 반대하는 모둠이 각각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것과 같이 민주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며, 인간 존중의 가치는 신분이나 성별·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토론활동 자료로 본다면 의견교환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토론활동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탐 구 활 동	<주제> 누가 배에서 내려야 하는가
	<p><제시문></p> <p>(※ 만화로 구성되어 있음)</p> <p>선장: 구명 보트의 정원이 초과되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배에서 내려야만 합니다.</p> <p>사람1: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선장 당신의 책임이니 당신이 빠지시오!</p> <p>사람2: 선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선장이 필요하오. 차라리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내리게 합시다.</p> <p>사람3: 나는 의사요. 혹시 여기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내가 꼭 필요할 거요.</p> <p>사람4: 여러분, 여기 우리 배 안에는 전과자가 타고 있습니다. 자,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p>
	<p><과제> 위의 상황에서 전과자가 물에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하는 모둠과 반대하는 모둠으로 구분하여 모둠별로 토론한 후, 대표자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각 모둠의 주장을 발표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D 교과서 p.27 -</p>

3) 학교 여건상 현실적 가능성 측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가 과연 실제적인 토론활동을 유도하고 있는 자료인지 살펴보기 위한 내용분석으로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세 번째 준거로 하였다. 이 준거에 대해서는 수치의 객관성을 위해서 학교현장의 경험 있는 교사에게 내용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8〉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 준거3

(비율: %)

준거 3	A		B		C		D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미흡	9	42.9	20	44.4	5	41.7	2	18.2	40.4
보통	7	33.3	8	17.8	4	33.3	4	36.4	25.8
우수	5	23.8	17	37.8	3	25.0	5	45.5	33.7
계	21	100	45	100	12	100	11	100	100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미흡한 수준은 B 교과서(44.4%) > A 교과서(42.9%) > C 교과서(41.7%) > D 교과서(18.2%) 순으로 나타나 D 교과서를 제외한 3사의 교과서에서 40%이상이 현실적으로 토론활동 자료를 활용하는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수준은 D 교과서(45.5%) > B 교

과서(37.8%) > C 교과서(25.0%) > A 교과서(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D 교과서는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토론활동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면,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는 가장 적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 분류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론활동 자료가 유사토론형으로 많이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유사토론형은 교과 내용을 학습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으로써 배경지식이 필요하거나 토론활동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토론활동이 1차시 수업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평균분포비율을 살펴보면, 미흡(40.4%) > 우수(33.7%) > 보통(2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탐구활동이 대폭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교과 내용이 대폭 감소한 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탐구활동의 상당수가 교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배경지식이나 충분한 정보가 없이는 학생들 스스로 토론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혹은 신문기사 등을 살펴보고 이루어지는 토론활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토론활동 자료라고 할지라도 학교 여건상 하나의 탐구활동에 1차시 이상의 시간이 배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교과서에서 토론활동 자료를 준거3의 수준별로 발췌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의 공익 침해와 권리 주장의 대립에 대한 토론활동 자료는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준거에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학습 내용을 신문 기사를 주제로 토론하게 되면 이해도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또한, 토론활동의 주제에 대해 3가지 쟁점을 제시해 주어 학생들이 토론활동을 과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의견교환이나 대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여 토론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민주정치와 이익집단

탐 구 활 동	<주제>	이익 집단의 이익 추구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제시문>	<p>가. 파업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p> <p>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프랑스의 파리는 하루라도 파업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도시이다. 파리의 지난 2월은 파업으로 시작되었다. 파리의 지하철, 버스, 교회 철도를 관장하는 파리 교통 공사의 파업을 필두로 환경 미화원, 종합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에어 프랑스, 국·공립 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차례차례 파업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1주일 가량 계속된 ‘파업 주간’ 동안 출근자들이 일제히 승용차를 몰고 나와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그러나 파리 시민 대부분은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한다면 내가 파업할 때 다른 사람의 공감과 연대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와 같이 노동 조합의 파업권을 존중하여 불편도 감수하고 있다. - ○○신문, 2001년 6월 15일 -</p> <p>나. 파업에 대한 우리 나라 시민들의 반응</p> <p>어제는 무척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하루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항공사의 동시 파업이 시작되었고, 전국 14개 도시는 여러 노동 조합이 주도한 시위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또, 12개 병원들도 파업에 돌입하여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파업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항에 나온 탑승객들은 망연 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항공사 직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곳곳에서 벌어졌다.</p> <p>시민들은 “100년 만의 가뭄이라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이익만 앞세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파업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방적인 파업 매도 분위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파업을 강행하는 근로자들 역시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신문, 2001년 6월 13일 -</p>
	<과제>	<p>자료 3, 4와 같이,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공익 침해’ 또는 ‘권리 주장’과 같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론해 보자.</p> <p>(1) 정당한 이익 추구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p> <p>(2) 공익을 넘어서는 행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p> <p>(3) 이익 추구 행위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 A 교과서 p.105 -</p>

다음은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준거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된 토론활동 자료를 살펴보겠다.

인간 존중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탐 구 활 동	<주제>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p><제시문> 15일 대한 의사 협회가 선포한 윤리 지침 중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된다.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현행법상 살인죄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만약 의사들이 새로운 윤리 지침에 따라 희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p> <p>실제로 지난 1998년 5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 사망하게 만든 서울 ○○병원 의사 2명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내친 김에 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의 한 의사는 “○○병원 사건 이후 의사들이 희생 불가능한 환자를 불필요하게 중환자실에 붙잡아 놓고 있어, 희생 가능한 다른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되는 등 문제가 많다.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로 말했다.</p> <p>그러나 아직까지는 소극적 안락사의 법적 인정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의료법 전문변화사인○○○씨는 “검찰이 희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면 현대판 고려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은 가능한 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신문, 2001년 11월 17일 -</p>
	<p><과제> 안락사 문제와 함께 낙태 문제, 인간 복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토의해 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 D 교과서 p.129 -</p>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주제는 논쟁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이 토론활동 자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유도

하고 있으므로 편중된 사고를 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어려운 주제로 수업의 일부분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신문자료의 정보만으로 이 토론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과제에서 제시한 안락사 문제, 낙태 문제, 인간복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배경지식이 필요한 토론활동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를 살펴보겠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탐 구 활 동	<주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제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통솔한다. -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는 있다. • 의원 내각제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은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고 통솔한다.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의회의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수상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과제> 의원의 행정부 구성원 겸직 및 입법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차이의 이유에 대하여 토의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각해 본다. <p style="text-align: right;">- B 교과서 p.54 -</p>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정부 형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토론활동의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결과를 준거별로 평균비율을 살펴보겠다.

〈표 19〉 토론활동 자료의 내용분석 준거별 수준

(비율: %)

준거 수준	준거 1		준거 2		준거 3		평균 분포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미흡	44	49.5	1	1.1	36	40.5	30.3
보통	19	21.3	42	47.2	23	25.8	31.5
우수	26	29.2	46	41.7	30	33.7	38.2
계	89	100	89	100	89	100	100

각각의 준거에 대해서 우수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가 38.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도 30.3%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고,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토의해보자’, ‘토론해보자’, ‘논의해보자’의 형태로 표현된 토론활동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 자료의 수와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수를 조사하고,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에 비례한 토론활동 자료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토론활동 자료의 비율은 출판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토론활동 자료의 수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탐구활동 자료의 수에 비례한 토론활동 자료의 비율이 10% 내외로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정치교과서 단위별 토론활동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위 ‘II. 정치과정과 참여’에서만 네 출판사 모두 토론활동 자료가 고르게 분포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한 출판사의 경우는 단위 ‘V. 정치발전의 과제’에서 토론활동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는 반면, 헌법, 국민의 권리, 국제사회 등을 주제로 하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토론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다양성과 다원화의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과 교육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을 분류해보았다. 토론활동 자료는 유사토론형, 제한적토론형, 자유토론형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유사토론형은 정치교과서의 교과 내용 혹은 탐구활동 자료에서 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론활동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유형이다. 제한적토론형은 제시문의 2가지 이상의 입장 혹은 방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에 맞게 표현하는 유형이다. 자유토론형은 토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답이 없는 토론활동이다. 토론주제에 대해 학습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도 들어보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별 평균분포비율에서 유사토론형(37.1%)과, 제한적토론형(21.3%)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유토론형(37.1%)보다 많이 나타났다. 탐구활동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과서의 경우 자유토론형(40.0%)이 유사토론형(42.2%)보다 작은 차이지만 적게 나타났다. 이는 양적으로 토론활동 자료가 많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토론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토론활동 자료가 가장 적게 나타난 출판사의 경우 자유토론형 자료가 정치교과서 전체에서 2개에 그쳤다. 이는 5개의 단원에서 자유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단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가 실제적인 토론활동을 유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준거에 의해 내용분석을 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하는 준거1의 결과로는 미흡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가 49.5로 토론활동 자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D 교과서의 경우 준거1에 대해 우수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토론활동 자료의 유형분류에서 유사토론형과 제한적토론형의 자료가 자유토론형의 자료보다 많았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토론형과 제한적토론형은 교과 내용 혹은 제시문으로 학생들의 견해를 수렴하게 하므로 주체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자유토론형에 비해 덜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준거2로 ‘대화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분석해보았다. 이는 준거1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D 교과서의 1개를 제외하고는 보통(47.2%)과 우수(51.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이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준거3으로 토론활동 자료가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뜻밖에도 미흡한 수준이 40.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탐구활동의 양이 대폭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교과내용이 줄어들어 탐구활동 자체가 교과 내용을 대신하는 활동들이 증가했다는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활동을 위해 신문기사를 수집하거나 설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경우 1차시 수업시간 내에 토론활동을 마치기 어렵다. 이들은 좋은 토론활동 자료라고 볼 수 있지만,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토론활동은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양적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출판사별로 토론활동의 수에 큰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유토론의 기회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가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토론교육을 받을 기회가 달라진다. 토론활동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토론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는 제시문이나 교과내용에서 정답

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드러났다. 이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사회과 목표의 중핵에 있는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에서 조차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 여건상 현실적으로 토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치교과서 탐구활동 중 토론활동 자료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상당수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에 미흡했지만, 대화의 능력 향상에는 대부분 우수한 수준의 토론활동 자료들이었다는 점이다.

2. 시사점 및 제언

다원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닌 민주시민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대화와 타협은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민주 시민성 함양에도 꼭 필요한 민주 시민의 자질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을 토대로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서 토론활동 자료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며 그 내용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8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정치교과서에서 토론활동 자료를 어떻게 수정·보완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언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대화하고 타협하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기회가 자주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의민주주의 요소인 대화와 타협을 경험하도록 토론활동 자료가 탐구활동에서 보다 많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성화·다양화의 특징을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민주시민을 양성할 책임이 있는 사회과 교과는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더불어, 내용선정 및 탐구활동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교과서는 크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단원에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주입식으로 교과내용이 전달된다면 학생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 단원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견해 혹은 새로운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일방향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교과서 5개의 단원에 대해서 고르게 토론활동 자료가 제공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교과내용을 대폭 줄이고, 탐구활동이 대폭 늘어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다수가 확인학습 수준으로 여전히 주입식이며 수동적인 활동이었다. 이는 정치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따른 탐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치교과서 탐구활동에 나타난 토론활동 자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도하며, 학교 여건상 현실

적으로 가능한 실제적인 토론활동 자료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된 토론활동 자료가 제8차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교과서에서 많이 나타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세중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주)천재교육.
- 공정미(2005). 교수·학습 방법이 정치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 김 영(2005).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탐구활동의 적합성 연구: 한국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5).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경제영역의 [탐구 활동]에 관한 연구: 교과서 분석과 교사들의 운용 실태를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근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법문사.
- 김용수(2006). 정치사회화 모델에 입각한 미디어 정치의제 특성과 효과 연구: 연정과 강정구 교수 이슈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철(2005). 『전자민주주의』. 서울: 오름.
- 김윤경(2003). 토론학습이 정치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효(1997). 『토론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지윤(2005). 중학교 『사회1』 교과서 탐구활동 사고유형 및 활동유형 분석: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찬옥(2004). “다원주의 시대의 세계시민 교육”. 『사회과교육』, 제43권 4호, pp.207-224.
- 박성혁, 김순희(2004). “『법과 사회』 교과서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6권 1호, pp.83-100.
- 박승관(2000).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제45-1호, pp.162-194.

- 박윤경(2001). “제 7 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채택 과정에 대한 연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과 교사들의 교과서 선호 이해”.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p.109-139.
- 박인옥(2005). “『사회·문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p.109-139.
- 박지현(2002). 정보윤리교육과 민주시민의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중현(2003). “정보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국민윤리연구』, 제54호, pp.239-258.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2005).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손승남(2000).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모색”. 『한국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pp.81-96.
- 송창석(2003). “Metaplan을 이용한 새로운 토론교육 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8권, pp.65-84.
- 심익섭(2004).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엠에드.
- 어명하(1997). “통일과 성숙한 시민의식”. 『교육연수 6』, pp.124-136.
- 유흥림(2003). 『현대 정치사상 연구』. 경기: 인간사랑.
- 이간용(2005). “「한국지리」 교과서 탐구활동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3집 제3호, pp.405-418.
-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통권34호, pp.157-185.
- 이극찬(2004).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이승중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주)지학사.
- 이재호(2004).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 교육 내용 분석: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학(2003).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pp.1-35.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 전득주 (외)공저(2004).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유평출판사.

- 정미경(2006).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세계사 영역의 ‘탐구 활동’ 분석. 경
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기제(2002).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심의민주주의 교육의 필요
성”. 『초등도덕교육』, 제10집, pp.95-108.
- 주인자(2005). 학교수업의 사회과 토의학습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수(1993). “개념학습과 고급사고력 함양: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과 한국병 치료를 위한 사회과교육의 처방”. 『사회와 교육』, 제
17권, pp.1-17.
- 차경수(2000). 『21세기 사회과 교육과정과 지도법』. 서울: 학문사.
- 차경수(2004). 『현대의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학문사.
- 천대운(2004). 『토의·토론·회의 방법론』. 서울: 선학사.
- 천희완(1999).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민주적 정치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
- 최병모 외(2003).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
- 최한수(1999).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추정훈(2004). “민주시민성교육 과정 속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교육
연구』, 제36권 2호, pp.399-421.

- Banks, J.A.(1891). *Multiethnic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 Dawson, R.E., Kenneth Prewitt, and K. Dawson.(1977). *Political
Socialization(2nd ed.)*. Boston: Little, Brown & Co.
- Dillon, J.T.(1994). *Using discussion in classrooms*.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Gutmann, Amy(1999). *Liberty and Pluralism in Pursuit of the
Non-Ideal*. Social Research(Winter).
- Habermas, Jürgen(1996).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in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net Edward and Ken Fogelman(2000). *Citizenship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 Mal Leicester, Celia Modgil and Sohan Modgil eds. Politics, Education and Citizenship. Routledge Falmer: London and New York.
- Jon Elster, ed.(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ton. Kenneth P.(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0

ABSTRACT

**The Problems of Discussion Activity Materials
of the Textbooks of Politics in High School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quiry activities -**

Ryu, Hyun-Kyu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discussion activities among inquiry activities are presented in textbooks of politics, depending on a question suggested that a lot of students are lack of democratic attitudes such as conversation and compromising skills.

For this purpose, I inquired into the meaning of conversation and compromise of deliberative democracy component, and reviewed the significance of discussion learning and its actual conditions through the recent studies. Then, I selected four different High-school textbooks of politics and performed quantitative and content analyses with priority given to deliberate activities presented as a form of 'Let's *discuss* something', 'Let's *debate* upon something', and 'Let's *argue* on

something'.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I checked the proportion of discussion activities classified by publishing company of the textbooks and the distribution of discussion activities per uni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discussion activities greatly varies in types of publishing company and the proportion of the activities per textbook is not high with ten percent or so. Also, discussion activities are the most fairly distributed in unit 2: Political Process and Participation and the least distributed in unit 3: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 unit 4: International Society and Politics. Chances to discuss are properly provided in the field of a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there are less chances to discuss in the field of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relatively.

On the content analysis, discussion activities are divided into a knowledge type and a discussion type, and then discussion type are classified into a selecting between the two type, a selecting among the multiple choice type and a free discussion type. The result is that the three type occupies more than 50 percent of discussion activities in three kinds of the textbooks al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among them. One of the textbooks even provides only three activities for free discussion and it is far less than the total number of unit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some specific implications for discussion activities in textbooks of politics of inquiry activities as the followings.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more chances to discuss freely because it makes possible for students to develop democratic attitudes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their opinion on the basis of learnt knowledge and trying to make a compromise with the spirit of tolerance.

Second, students are likely to be passive implicitly in contents of the textbook under the cramming education without chances to discuss. Therefore, textbooks of politics should be revised to evenly provide students with discussion activities every unit so that they can have a chance to think about various kinds of social issues.

Third, researching activities a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7th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as it emphasizes a self-leading studying and a research-oriented learning. However, the majority of discussion activities are no more than confirmation check-up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modify discussion activities in the textbooks of politic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earching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e curriculum.

Finally, more practical deliberative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so that students are able to be subjective in thinking and judging for themselves.